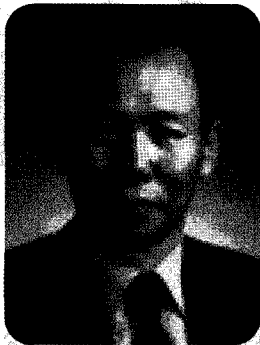


에너지절약, 예산 효율집행, 부실방지 등 분리발주는 산업발전 촉매제

대한설비공학회 이재현 회장(한양대 교수, 공학박사)



기계설비공사의 발주방식을 놓고 에너지낭비요인 억제, 국가적 예산손실방지 등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주장하는 측과 하자책임 한계와 공정관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다.

그런가 하면 누수, 난방불량 등 하자 발생시 건축공사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것과 업체간 협조체제 미흡으로 선행 공종이 지연될 시 후속공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일괄발주를 주장하는 측의 반대이다.

이에 대해 공정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계획, 다시 말해 공정관리에 협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풀이하고 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일괄발주를 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하자문제도 반대로 하도급을 할 때 공사의 이해도, 처리과정이 문제가 돼 오히려 하자처리 지연현상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거 설비건설업은 부대설비라는 건축의 일부였지만 지금은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한 전문화된 분야로 독립 공종의 성격을 띤 건축물의 평균 30~40%에 이르고 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 원도급자, 설비는 하도급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해결의 열쇠라는 지적이다. 실제 외국 사례를 점검, 수집하기 위해 연구위원들이 해외를 다녀오는 등 1년여에 걸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타당성」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낸 대한설비공학회 이재현 회장은 대응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한건설신문

특히 국내 연간 에어지 수입 약 250억불 가운데 약 3분의 1 가량이 건물에 사용되고, 이중 절반이 설비를 통해 사용되고 있어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은 타업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견해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현 회장은 「우리는 단순하게 공사를 하는 데만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설비건설업이 대형화 추세에 들어선 만큼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관심 사항인 에너지 낭비요인을 기술과 시공을 통해 억제시키는 일이 급선무이다. 답은 나와있다. 전문성을 살려 에너지 예산손실문제, 부실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타당성 작업을 했던 것이다」라고 연구작업을 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또 이재현 회장은 분리발주의 진정한 장점에 대해서 「기계설비공사는 부실시공시 부실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에너지 낭비 등 운전경비의 증가, 설비의 LCC수명 단축에 의한 유지비, 개·보수시 재시공까지 염두를 두는 양질의 시공은 물론 공개 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원·하도급 계약금액의 차액이 시공비용 부분에 투입됨에 따라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킴과 동시에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계약의 불평등성에 취득하는 비용(대충 공사비의 15~30%)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저가하도급에 의한 정부예산 누수현상을 차단, 결국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찾아냈다. 아울러 국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건설시스템의 총체적 품질향상' 즉 부실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내도 전기분야 등에서는 분리발주를 하는데, 문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수십 개 조문보다 「분리발주규정」 하나가 실질적으로 훨씬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현 회장은 경제성 측면에서의 분리발주와 일괄발주 비교에 대해서 「분리발주는 적정한 공사대금의 확보로 원도급자의 중간 마진이

존재하지 않아 적정비용이 보장되고, 설비업자들이 원도급자의 위치에 서서 시공, 이로 인한 책임감으로 인해 기술자의 수준, 원재료의 품질, 공사기간에 대한 영향 등으로 품질의 하락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현 회장은 외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낀 실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공정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공공사의 공사비는 세금에서 부담하여 분리발주시 원도급자에게 주어지는 중간 마진이 없어지므로 공사금액을 절감, 결국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시공 전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결론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분리발주를 해 전문업자에게 맡겨 공사의 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술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웃 일본은 관공사 80%가 분리발주로 발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재현 회장은 「2000년 5월에 건설교통부가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분리발주를 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에너지 비용과 정부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라는 협조공문을 관련발주기관에 시달렸으며, 대한주택공사도 최근 옥내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등 교육부, 한국통신 등이 필요성을 인지,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또 담당관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연구결과는 에너지절약, 예산절감, 부실방지 차단, 투명성 확보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설비기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소비자들이 건물 내에서 냉·난방을 비롯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체감하는 것이 바로 설비라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